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0일 오후 5시 강원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담회에 참석.

건설경기 한파 여전 고용시장마저 '꽁꽁'

수주량 83% 줄어든 482억원
건설업 취업자 4,000명 급감
건설사 경영난 예산투자 시급

도내 건설업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향후 건설경기 침체 전망 및 실제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5만명으로 전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특히 건설시장 비수기인 지난해 12월(6만 2,000명)과 올해 1월(5만4,000명)보다도 취업자가 적다. 또 2016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취업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 전국의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1만1,000명 늘어났다.

지역 건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은 대형 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공사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

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전체 건설수주액은 48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월 2,975억원보다 무려 83.8%나 줄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418억원으로 23.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96.9% 줄어든 64억원에 불과했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도 올해 1월 592호로 1년 전 대비 77.4% 줄어든 등 주택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향후 공사물량도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 공공공사 전체 공사금액이 지난해보다 400억원가량 줄어든 3조3,77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물량 감소로 건설사의 경영난은 물론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민간사업 발굴 및 예산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20일 오후 5시 강원
조달청에서 열리
는 '강원도 건설산
업 발전을 위한 간
담회'에 참석한다.

인사

◇대한건설협회 <실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진광현 △총무지원실장 김종현 △계약제도실장 송광일 △건설진흥실장 이재식 △SOC·국제협력실장 강영길(문화홍보실장 겸직) △정보관리실장 강해성 △회원고충처리센터장 황승현 △감사실장 진장욱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파견 박승화